

하북정전관광명소 한국어관광사

河北经典旅游景点 韩国语导游词

● 本书编写组



中国旅游出版社

河北经典旅游景点韩国语导游词

하북경전관광명소한국어관광사

本书编写组

江苏工业学院图书馆
藏书章

中国旅游出版社

责任编辑:殷 钰

装帧设计:赵 芳

责任印制:闫立中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河北经典旅游景点韩国语导游词:汉朝对照/本书编写组.
—北京:中国旅游出版社,2008.9
ISBN 978-7-5032-3541-2

I. 河… II. 本… III. 导游-解说词-河北省-
汉、朝 IV. K928.92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8)第139372号

书 名:河北经典旅游景点韩国语导游词

主 编:本书编写组

出版发行:中国旅游出版社

(北京建国门内大街甲9号 邮编:100005)

http://www.cttp.net.cn E-mail: cttp@cnta.gov.cn

发行部电话:010-85166507 85166517

排 版:北京中文天地文化艺术有限公司

经 销:全国各地新华书店

印 刷:北京新魏印刷厂

版 次:2008年9月第1版 2008年9月第1次印刷

开 本:720毫米×970毫米 1/16

印 张:14

印 数:1-3000册

字 数:280千

定 价:40.00元

I S B N 978-7-5032-3541-2

版权所有 翻印必究

如发现质量问题,请直接与发行部联系调换

编委会成员名单

主 任：王新勇

副 主 任：纪保平

委 员：郭 平 舒 艳 温学军 金 迪 杨瑞杰

主 编：刘启亮 赵 非

主 译：李英善

主 审：申惠娟

编写说明

《河北经典旅游景点韩国语导游词》是河北省旅游局为加大导游队伍建设力度，加速培养外语导游，配合韩语导游资格考试而编写的一本韩语导游培训教材，也是河北省旅游局奉献给世界各地的海外游客的一份礼物。

《河北经典旅游景点韩国语导游词》是在中文版《河北导游词精粹》一书的基础上编写而成。本书的出版既为来河北旅游的海外游客提供一本具有实用性的旅游指南，同时也为各地的韩语导游，旅游从业人员提供了河北旅游的韩文资料。本书的出版，对宣传河北旅游资源，提高河北名胜古迹的知名度，促进河北旅游业发展将起到积极作用。

我们衷心希望这本书能够成为广大读者的得力助手，衷心地祝愿河北旅游业有更大的发展。

编者

2008年5月

目 录

수도주변지역——하북	1
피서산장	7
보타종승지묘	14
보녕사	20
조주교	27
맹강녀묘	32
총대공원	35
승예스키	36
목란위장	39
융흥사	45
북대하	56
탁록삼조문화	59
무강년화박물관	63
홍수삼절	66
직여총독서	72
천하제일관	78
청동릉	82
만성한묘	85
공산백운동	90
향하제일성	94
금산령장성	102
청서릉	107
섭현와황궁	113
향당산석굴	116
오교서커스대세계	119

京畿重地——河北	128
避暑山庄	131
普陀宗乘	136
普宁寺	140
赵州桥	144
孟姜女庙	148
从台公园	150
崇礼滑雪	151
木兰围场	153
隆兴寺	157
北戴河	165
涿鹿三祖文化	168
武强年画博物馆	171
衡水三绝	173
直隶总督署	177
天下第一关	181
清东陵	184
满城汉墓	186
崆山白云洞	189
香河第一城	192
金山岭长城	199
清西陵	203
涉县娲皇宫	207
响堂山石窟	209
吴桥杂技大世界	211

머리말

수도주변지역——하북

하북성은 중국의 북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연산, 남쪽으로는 황하, 서쪽으로는 태항산, 동쪽으로는 발해에 면하였고 총 면적은 18.8만 평방킬로미터이며 인구가 6700만명이고 성소재지는 석가장입니다.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수려한 산과 하천으로 인해 하북은 중국의 중요한 관광 도시로 되었습니다. 목전, 하북은 많은 역사와 문화, 유적을 가지고 있어서 규모면에서 전국의 1/9을 차지하고, 국보급문화재가 88개로서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성급 이상의 문화재가 680개로서 전국에서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국가급문화명승지5곳, 중국 우수관광도시 6곳, 전국 10대풍경명승지 2곳, 국가급풍경명승지 7곳, 국가급산림공원11곳, 국가급자연보호구 7곳이며 국가AAAAA관광풍경구도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7년 진황도시 산해관 풍경구, 보정시 안신백양전 풍경구, 승덕시 피서산장 및 그 주변 사묘풍경구는 전국 관광풍경구질량등급평정위원회에서 국가AAAAA급 풍경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북성 역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변, 평원, 호수, 구룡, 산지, 고원이 모두 있는 성으로서 온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에 속합니다. 완벽한 지형과 지세를 가진 하북성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천태만상을 이루며 그 자연풍경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과 끝없는 구름바다가 떠있는 패상초원에서는 일단 바람이 불어오면 숲속에 잠겨있던 소와 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와 봉우리의 높낮이가 비슷한 아름다운 태항풍광, 연산준령, 새하얀 백설이 뒤덮여 은단장을 한 산지 림해설원, 일망무제하게 아득히 뻗은 옥야, 부드러운 모래와 조수, 고른 하늘과 하천이 잇닿아 있는 발해 해변, 그리고 도랑과 골짜기가 가로세로 뻗어 있고 푸른 버들과 연분홍 연꽃이 피어 있는 해변과 못, 호수는 관광객들이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휴식터로 되고 있습니다.

하북성은 중화 민족 발상지의 하나입니다. 5천년 전에 중화 민족의 3대시조인 황제, 염제, 치우는 <싸움은 탁록의 평야에서 하고 국가는 탁록의 언덕에 세우며>란 중국문명사를 창립하였습니다. 제일 오래된 중국 지리지작 <우공>에서는 하북은 아홉개 주 가운데서 익주지지에 속하므로 간단히 <익>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춘추전국시기, 하북은 연나라와 조나라에 속하고 근 백년간의 영예와 치욕, 흥망과 성쇠를 거쳐 무수한 눈물겨운 이야기를 엮었고 역사적으로 <연조>란 호칭이 있습니다. 천고의 황제 진시황은 한단에서 태어나 형대에서 사망했습니다. 진시황은 여러 차례 창주와 진황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장생불로약을 찾았으며 대부분 일생을 하북에서 보냈습니다. 위진 남북조시기, 하북은 각 제후국이 정권을 탈취하는 주요한 전장이었습니다. “유, 관, 장”은 탁주에서 의형제를 맺고 천하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패권을 잡고 좌지우지하였는데 그 성과가 대단하였습니다. 조조는 업성을 차지하고 현능한 인재를 주도면밀하게 등용하였고 시인들의 흥취조 불러 일으켰는데 건안문학이 이 시기에 흥기했습니다. 북제 때에는 불교신앙이 융성하였습니다. 고양황제는 향당산에서 굴을 파고 사당을 세웠는데 규모가 방대한 석굴은 예술적이었습니다. 당, 송 두 조대에는 불교의 선학이 이름을 날렸고 현장은 백림사, 제음사에서 다년간 도를 닦으면서 후에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원, 명, 청 삼조는 북경을 수도로 정하였기에 하북은 북경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주요한 곳으로 되었습니다.

자고로 연나라와 조나라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눈물겨운 비장한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보기, 듣기, 묻기, 베기” 4대 진찰 방법을 연구해 낸 전국시기 명의 편작, “인간은 승천할 수 있다”를 주장한 순자, 연나라 자객 형가, 서한의 철학자 동중서, 원주율을 가장 정확하게 계산해 낸 남조시기 수학자 조충지, 때를 맞추어 군대를 일으켜 북벌해 주원을 수복한 조적, 당조의 저명한 시인 가도, 원대의 저명한 천문학자 곽수경, 대희곡가 관한경, 명작 “홍루몽”을 써낸 청조의 저명한 작가 조설근, 현대사에서 장엄하게 죽음을 맞이한 혁명의 선구자 이대소,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낭야산 다섯용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동존서……한세대 또 한세대의 연조의 아들딸들은 하북의 영웅이고 수재이며 그들이 엮은 무수한 이야기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노래로 불러져 인민들에게 전해지었고 또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빛냈습니다.

하북의 역사는 다채롭고 화려한 민속문화와 민간예술을 낳았습니다. 정요, 형요, 와주요와 당산 도자기는 중국 역사상 북방도자기예술의 전형적인 대표입니다. 위현의 종이오름, 무강의 년화, 랑방의 경태란, 곡양의 석조, 형수의 내화비연호, 익수의 벼루는 중외에 이름을 날리었고 하북의 딱따기, 보정의 지방극, 당산의 인형극, 정형의

랍화는 그 독특한 운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창주의 무술, 오교의 서커스, 영년의 태극, 보정의 건강장수지도는 그 매력이 널리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북성에 완벽한 관광자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관광업의 발전을 둘러싸고 하북성은 과감히 국내외시장에 진출하여 관광자원을 발굴해 내고 8갈래의 독특한 관광코스를 내놓았습니다.

첫번째 갈래: 의동해변휴가관광코스

북경에서 출발하여 경-심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준화시, 옥전현, 노용현, 무녕현을 거쳐 진황도에 도착하는데 그 거리가 28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준화시의 청동릉은 청왕조의 황릉군 두 개 중의 하나입니다. 규모가 방대하고 건축설계가 아름답고 기세가 도도한 이 곳에는 5명의 황제, 15명의 황후, 136명의 왕비들이 묻혀 있으며 강희제, 건륭제, 자희태후 등 청조의 유명한 제후들이 여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당산은 지진 후의 폐허로부터 다시 건설한 새 도시로서 지금까지도 1976년의 대지진으로 인한 유적들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산은 ‘북방의 도자기도시’로서 해마다 이곳에서 열리는 도자기박람회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을 모여들게 합니다.

진황도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해변관광도시로서 ‘여름의 도시’란 호칭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리장성의 시발점인 산해관노용두가 있고 유명한 관광피서지인 북대하, 남대하, 창려황금해안도 있습니다.

두번째 갈래: 승덕황실풍경관광코스

북경에서 출발하여 경-승 관광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회유, 밀운, 난평현을 경과하면 역사문화명승지인 승덕시에 도착합니다. 그 총 노정은 23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노선은 전에 청조의 황제들이 국경밖에 나가 순찰하던 노선이기도 합니다. 주요한 경관은 승덕의 피서산장과 외팔묘, 북부의 위장현 삼림초원입니다.

승덕의 피서산장은 세계에서 제일 큰 고전황실원림입니다. 피서산장은 자연적인 산수지세를 이용하였으며 또한 중국 전통원림건축의 복용남수의 특징을 살렸는데 <천하의 풍경을 한데 모은 곳>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도 가졌다고 합니다. 산장 주위에 있는 외팔묘는 전국에서 제일 큰 황실묘건축군입니다. 외팔묘는 금빛과 푸른 빛의 광채가 눈부시게 빛나고 장관적이며 늠름한 풍채로 보위병마냥 산장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별이 달을 에워싸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외팔묘는 몽, 장, 위, 한, 만 등 여러 민족의 건축풍격을 종합하여 지었고 중국 고대건축예술의 정화들을 모았으며 각 민족문화예술의 매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중화 민족이 단결되고 통일된 역사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위장삼림초원은 청왕조의 황실수렵장이면서 군사훈련기지이기도 합니다. 몇 백년의 정치, 군사활동은 무수한 역사문화유적을 남겼습니다. 풍경이 독특한 산과 하천, 가없이 넓게 뻗은 삼림초원, 풍부한 야생동식물자원은 인류가 진정으로 순수한 대자연의 풍치를 만끽할 수 있는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세번째 갈래:경북초원유람관광코스

북경에서 출발하여 고동급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떠나 회유현을 지나면 풍녕현에 도착합니다. 그 총 노정은 19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풍녕은 경북의 제일초원이고 북경까지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천연대초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맑은 물, 가없는 초원, 짐승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곳은 “경북의 관광명주”로 불리웁니다.

네번째 갈래:새외관광코스

북경에서 출발하여 경-장 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창평구, 연경, 선화를 경유하면 새외명승지인 장가구에 도착합니다. 그 총 노정의 길이는 20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장가구관광은 장성, 초원과 시조문화로 구성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탁록현의 황제성은 중국에서 가장 빨리 건립된 도시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천고의 문명은 탁록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곳에는 아직까지 황제성, 염제성, 치우성 등 많은 문물고적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신흥의 온천욕장, 탐험표류, 관광농업, 산지스키 등은 장가구로 하여금 경서북의 한가로운 휴양지로 되게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갈래:경교태항풍경관광코스

북경에서 90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내수현, 야삼과, 내원현, 백석산은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는 풍경관광구로서 태항풍경명승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백리협, 거마하, 불동담, 용문협, 금화산, 백초반 등 많은 풍경구도 천태만상을 이루고 우아한 매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 곳들은 북경과 천진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으며 한가한 요양을 즐기고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되었습니다.

여섯번째 갈래: 연조문화관광코스

북경에서 출발하여 경-광 철도와 경-심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행하여 보정, 석가장, 형태, 한단 네 개 중심도시를 지납니다. 총 노정은 450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도시들은 서쪽으로는 태항산맥, 동쪽으로 화북평원에 면해 있으며 문화침적이 농후하고 문물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탁주는 “삼국연의” 저작이 시작된 곳이며 청서령은 청왕조 두 개 룡묘 중의 하나입니다. 만성한묘는 “금루옥의” 고향이고 보정의 직예총독서는 전국의 유일한 청대성급총독관청입니다. 백양전은 화북의 제일 큰 담수호이고, 염장의 갱도전기념관은 중국인민의 두려움 모르는 불굴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제국주의를 타격한 비장한 역사는 정정홍용사를 “경남의 제일사찰”로 되게 하였습니다. 조현의 조주교는 세계 교량의 시조이고 평산의 서백파는 중국 혁명의 마지막 농촌지휘소입니다. 한단은 전국시기 조나라의 수도이고 저명한 성어의 전고이며 아직까지 향당산석굴, 와황궁, 무령총대와 황량몽려선사 등 문물고적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령수오악채, 평산천계산, 찬황장석암, 정형항암산, 임성공산백운동, 섭현와황궁 등 태항산 승경은 수려한 자연풍치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호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일곱번째 갈래: 익동남민속풍경관광코스

북경에서 출발하여 경-진-당 고속도로, 경-호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행하여 향하현, 랑방시, 천진시, 창주시, 오교현을 가로 지나 형수현에 이르는데 총 노정은 410 킬로미터입니다.

향하현의 제일 성은 외부는 명, 청 시대의 고성 북경을 모방하여 건축하였고 그 안에는 중국의 고급문화들을 수집하여 이채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방대한 인조경관 중의 하나입니다.

랑방, 형수는 하북성의 관광상품기지이며 이 곳에서 생산하는 몽양, 경태람, 비연호 등 상품은 종류가 많고 공예가 아름답습니다. 창주의 오교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서커스 고향입니다.

여덟번째 갈래: 장성관광코스

장성은 중국관광의 상징으로서 하북관광의 주요한 산품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만리장성은 전반 하북성을 가로 지났는데 그 길이가 2000여 킬로미터나 되어 하북성으로 장성이 지나간 길이가 제일 길고 제일 완벽하게 보존된, 건축풍격이 독특한 성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만리정성의 첫 시작인 노용두, 천하제일관인 산해관, 벼랑에 거꾸로 달린 각산장성, 산개울을 뛰어넘은 구문구장성, 물속에 잠입해 들어간 반가구장성, 험준한 금산령장성, 장성의 요새 대경문, 장성의 역사적인 전설에 의해 지은 맹강녀교 등은 모두 하북성내에 있습니다.

编译: 李英善

피서산장

피서산장

피서산장은 승덕시 중심 북부에 위치해 있는데 중국에서 제일 큰 황실원림으로서 부지면적이 564헥타르이며 이화원의 2배, 북해공원의 8배입니다. 10 리 되는 궁벽은 마치 만리장성과도 같이 높은 산과 평원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서산장은 산세를 따라 지었는데 구조가 합리적이며 새벽 산들의 기묘하고 웅대한 기백, 강남수향의 청수한 미로 수 천년 중화원림건조의 예술풍채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 120여개의 건축은 물과 산세를 따랐으며 그 높고 낮음은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 마치 천연적인 한 폭의 산수화를 방불케 합니다. 여기에는 원림 창조자의 지혜와 재능이 안반침되어 있습니다. 피서산장의 72개 풍경 중 무릇 네 글자로 명명한 것은 강희황제가 쓴 것이고 세 글자로 명명한 것은 건륭황제가 쓴 것입니다. 이런 편액의 호칭들은 어떤 것은 성어에서 온 것이고 어떤 것은 경구에서 온 것입니다. 참 신하면서도 소박한 호칭들은 피서산장의 하나 하나의 풍경에 시적 이미지를 더해 주고 나아가 산장으로 하여금 더욱 문화적 색채를 풍기게 합니다.

승덕——제왕의 후화원

청조초기 승덕은 <열하상영>이란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그 후에 조금씩 발전하여 청조 통치자들의 후화원이 되면서 귀족들이 모여 사는 도시로 되었고 청조의 두번째 정치중심으로 되었습니다. 가경기간(1723년~ 1735년) 선제의 은택을 그린다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승덕이라고 고쳤습니다.

다민족국가를 통일하고 변강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강희황제는 자주 북으로 순찰하면서 북경으로부터 350킬로미터 떨어진 몽고족들의 유목지대다 목란위장을 건설하여 대규모적인 수렵활동을 벌리고 군사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추미성전”(가을사냥)이라고 합니다. 매번 황제가 북으로 순찰하거나 목란으로 가을사냥을 떠나면 장성 이북

에서 3~5개월 동안 체류했습니다. 그리하여 도중에서 숙식, 물자운송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또 휴양하거나 조정문제를 처리하는 장소가 필요했기에 가는 곳마다 20여개의 행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강희황제는 몇번의 고찰을 거쳐 비교해 본 결과 승덕이 별원을 짓는데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 생각했습니다. 승덕은 풍경이 수려하고 기후가 적합하고 지세가 험한 산에 쌓여 있어 한 여름 평균기온이 24섭씨도이고 북경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말을 타면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왕조의 발상지인 북방도 바로 갈 수 있었고 관내를 직접 내려다 볼 수도 있었기에 몽고 각부의 진공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원교에다 별장을 짓는 것은 만족인들의 습관으로서 북웅남수, 자연미를 겸비한 승덕은 만족인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승덕은 휴식을 하고 조정을 처리하는 좋은 곳일 뿐만 아니라 만족인들이 피서를 즐기고 천연두를 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강희황제는 난하지판에 행궁을 짓고 친필로 <피서산장>이라 명명하였고 이곳은 빠른 시일내 청왕조가 북경 이외에 군정과 민족문제를 처리하는 정치중심으로 되었습니다. 서방인들이 <로마는 더 이상은 로마가 아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로마다.>라고 말하듯이 피서산장은 청왕조의 두번째 정치중심으로 되었습니다.

피서산장의 수건

열하행궁은 강희 42년(1703년)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강희 1711년에 초보적인 건설을 끝마쳤습니다. 열하행궁이 군 행궁의 중추이기에 그 규모는 보통 행궁을 초과했습니다. “피서산장”은 강희황제가 명명한 것입니다. 건륭시기에 조부인 강희황제의 “동심협력하에 통치를 강화하고 다시 정수하는 정신”을 계승하여 산장을 대규모적으로 확장건설하였습니다. 산장공정은 건륭57년(1792년)에 끝마쳤는데 모두 8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서산장은 자금성 버금가는 두번째 정치중심일 뿐만 아니라 중국4대원림 중의 하나이며 세계상에서 보존되고 있는 가장 완벽한 황실원림이며 피서산장 역시 <강건성세>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1984년 유네스코는 피서산장과 외팔묘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였습니다.

피서산장의 풍경과 관광명소

산장은 공능에 근거하여 궁전구, 원경구로 나뉩니다. 궁정구는 산장의 남부에 위치해 있고 정궁, 송학재, 만학송풍과 동궁 등 네 개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청조 황제와 후비들이 일상생활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조정을 관리하고 정사를 행사하

며 경전을 거행하고 잔치를 벌이는 오락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동궁이 이미 불타 버렸다는 것입니다. 파란색 벽돌과 회색 기와로 된 궁전은 우아하면서도 소박하며 봉건제도의 법칙을 엄격히 준수하였습니다. 원경구는 또 호수구, 평원구와 산구로 나뉘는데 지형이 복잡하고 서북부는 봉우리가 겹겹이 둘러싸여 있으며 수목이 무성합니다. 동남부 호수와 높은 우리 나라 강남수향의 아름다운 정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산과 호수사이에 넓은 평원이 있어 북국의 망망한 초원의 풍경을 연상시킵니다. 전반 원경구의 배치는 청왕조판도의 축도이기도 합니다.

피서산장의 궁전구는 강희52년에 건설하여 건륭19년에 다시 수건했는데 부지 면적이 1만평방미터입니다. 중국전통음양학에 의하면 고대 중국인은 우수를 음으로, 기수를 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음은 여자를 대표하고 음침하고 소극적이며 양은 남자를 대표하며 명랑하고 적극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수자 9는 우수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서 대부분 황제가 사용하는 궁전은 아홉 개의 원을 가졌고 9는 황제의 숫자로서 고대천자는 <신거구중>이라 했습니다. 정궁 중축선 위에 있는 건축은 담박경성전, 사지서우, 연파치상전, 연우루를 포함합니다. 정궁은 전조와 후궁으로 조성되었는데 황제가 거주하고 국가대사를 처리하고 경축의식을 거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타 건축도 모두 중축선 위에 대칭적으로 분포되었는데 양측은 장엄한 황실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려정문은 피서산장의 정문으로서 궁전구 제일문이기도 합니다. 려정문은 면적이 크고 상하 두 층으로 나뉩니다. 아래층 벽에는 세개의 사각형 통로가 있고 위에는 성대와 결루가 있습니다. 중간 통로 위에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 건륭황제가 만, 한, 몽, 장, 위5종 문자로 쓴 <려정문>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려정>은 <역경>에서 나오는데 <역.리괘>에서는 <해와 달의 아름다움은 하늘에 있고, 백곡 초목의 아름다움은 땅에 있고 중명의 빛남은 바른 것에 있으며 바로 천하를 따르는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려>는 따르다는 뜻으로, <려정>은 방위가 바르고 공명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려정문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의 영원한 흥성발전을 상징합니다.

피서산장은 대궁문, 이궁문을 포함합니다. 강희황제가 친필로 쓰신 <피서산장> 편액은 금으로 도금한 것으로 이궁문내에 있으며 이를 <피서산장문>이라 합니다. 세심한 관광객들은 편액 위의 중국어로 된 <피>자가 한 획 더 그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무를 겸비한 강희황제가 글자를 잘못 썼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청조에서는 이 두 글자를 다 사용했는데 어느 글자를 사용하든지 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서법상에서 볼 때 한 획 더 그은 <피>자가 더 아름답고 대범하고 미묘하지 않을까요?

궁전구는 규모가 방대한 황실원림의 남부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10만 평방미터이고 사합원 건축풍격을 채택하였으며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궁의 주전-담박경성전은 북경 자금성의 태화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청조황제가 중대한 경전을 성행하거나 백관을 만나고 소수민족 수령, 외국 사절들을 접대하고 조정을 처리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는 6세 벤첸이 라마 2000명을 거느리고 만리길을 걸어서 500일간 천신만고 끝에 승덕에 와서 황제를 회견하는 원인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담박경성전은 강희년간에 건설되어 건륭년간에 남목으로 다시 개건하였는데 <남목전>이라고도 합니다. 담박경성전은 남목, 청색 벽돌과 회색 기와, 본색 기둥으로 조성되었으며 단아하면서도 정중하고 소박한 이미지를 겸비한 건축풍격은 고궁의 황색 기와, 홍색 담벽, 금빛찬란한 건축풍격과는 현저한 대비를 이룹니다. 건륭황제는 전에 <자고로 한, 당조시기를 거치면서 황제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도 이외에도 토목공사를 벌려 많은 자원을 낭비하였고 심지어 한 개 국가도 궤멸시켰는데 우리는 마땅히 이런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어 그는 궁전을 건축할 때 소박함을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담박경성전은 황제의 이런 사상을 구체적으로 체현하고 있습니다.

담박경성전은 은7,200냥을 소모했고 일꾼이 19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궁전은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았고 기둥, 칸막이, 천장판은 남목으로 만들어졌으며 질량이 단단하고 색채가 고풍스러우며 청향이 담담하게 풍겼습니다. 천장판, 칸막이 위에는 정교하게 복숭아, 박쥐, 풀 등을 조각했고 <오복봉수>와 <만복만수>도안이 있습니다. <고금도서집성> 만권이 북부의 책꽂이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보좌 양견에는 선학이 놓여있고 뒤에는 단행목 병풍이 있으며 위에는 163개의 형태가 다른 사람들의 <경적도>가 살아있는 듯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백성에 대한 황제의 배려를 보여줍니다. 담박경성전의 앞 처마에는 금목에 검은 글자로 된 편액이 세 개 있는데 건륭황제가 제사한 것으로서 고대 천자의 회노애락을 나타내며, 당시 황제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지서우는 황제가 가까운 대신을 접견하거나 휴식하는 곳으로서 황제가 중요한 손님을 접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황제는 일반적으로 이곳에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는 벤첸라마와 영국대신 조지, 마알얼을 이 곳에서 접견하였습니다. 당시 황제는 차와 과일로 벤첸라마를 접견하였는데 연회가 끝난 후 황제는 규례를 타파하고 친히 벤첸라마를 모시고 자기의 후궁침궁을 참관하게 하였습니다.

연파치상전은 청황제 침궁인데 가경제와 함풍제가 병으로 돌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사면이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고 심리 호수로 인하여 상쾌한 기분이 든다.> 따라서 강희황제는 이 곳을 <연파치상전>이라 명명하였습니다. 1860년 팔국연합군에 의해 북경이 점령된 후 함풍황제는 모친과 귀비들을 데리고 이 곳으로 피난왔다고 합니다.

함풍황제는 이 곳에서 상주문을 수정하였고 그의 동생 공친왕은 영국과 프랑스와

<북경조약>을 체결하였고 러시아와는 <애훈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런 조약은 중국으로 하여금 주권을 상실하고 능욕을 당하게 했으며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건륭황제는 시에 조예가 깊었고 아름다운 서법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많은 편액, 비문, 조각작품으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건륭황제는 나중에 그의 자손들이 똑같은 아름다운 문자로 홍콩을 영국에 빼앗기는 <북경조약>을 체결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서난각은 함풍황제의 귀비 즉 후세에 유명했던 자희태후의 거실입니다. 방에는 자희태후의 일상용품이 있고 <자희>는 함풍제가 하사한 이름으로서 <성모>라는 뜻입니다. 1861년 함풍황제가 돌아간후 자희태후는 자기가 정권을 잡고 중국에 대한 통치를 시작했는데 48년이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산장의 원경구 면적은 북경 이화원의 6배로서 호수구, 평원구, 산구로 나눕니다. 호수구는 산장의 동남부에 자리잡고 있는데 모두 9개 호수와 열개 섬이 있습니다. 호수구의 아름다운 경치는 모두 중국 남방원림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서 산장의 호수를 총칭하여 세호라 합니다. 관객들은 호수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청련도, 여의주도, 월색강성도가 있습니다. 호수면 위에는 녹수가 드리워져 있고 가끔 작은 물보라가 이는데 바람이 불면 향기가 풍겨와서 이런 가경은 남방원림중의 풍경을 연상케 합니다.

호수구

산장은 산으로 의해서 이름지어졌지만 물로 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호수구를 천천히 걷노라면 우선 먼저 눈에 다가오는 것은 수심사입니다. 수심사는 하나의 석교위에 자리잡고 있는데 세 개의 정각이 있습니다. 수심사는 긴 제방으로 이어졌으며 제방을 통해서 환벽도, 청련도와 월색강성도를 지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구름과도 같으며 여의를 되풀이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 잇닿아 있는 세 개의 제방은 옛적부터 “지정은제”라는 호칭이 있었으며 강희황제가 명명한 32경 중의 제2경입니다. 강희년간, 음력7월15일 중원절이면 향을 피웠는데 이 곳에서 자주 맹란분회를 거행했습니다. 청련도주전은 황제가 공부하던 곳입니다. 월색강성은 전형적인 사합원 건축을 채용한 것으로서 왕실성원이 밤 늦게 달구경을 하거나 가무를 즐기던 곳이기도 합니다. 청련도위의 주체 건물은 연우루인데 면적이 넓고 상하 두 층으로 나뉘고 루 위에는 회랑이 둘러져 있습니다. 연우루는 절강 가흥의 연우루를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비의 자태와 연기의 미묘한 연계를 감상할수 있으며 1780년(건륭45년)에 세웠습니다. 매년 비가 올 때면 연